

政黨정치 흔들 百尺竿頭에 섰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대의 민주주의不信 이어져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2011년은 아마도 '치욕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여야의 두 유력후보들이 다 같이 정당공천을 기피하고 한사코 범여권 후보 또는 범야권 후보를 원하는 기현상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공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원내 제1당과 제2당인 이들 두 당이 얼마나 인기가 떨어졌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나라당의 경우는 이탈현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보수세력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세력' 형성을 외치면서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주장하고 있다.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바로 정당을 매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모 유력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1.4%가 다음 선거에서 자기지역구의 18대 의원들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일부 대도시, 즉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의 응답자들은 각각 62%, 67%, 78%의 높은 비율로 이들의 퇴출을 희망했다.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 동안 국회는 차기 정권획득이라는 당리당락의 제물이 되어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다.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의안의 심의 보이콧이 일상화하여 입법부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리기가 일쑤였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의사당 안에서 쇄망치와 전기톱, 그리고 몸싸움으로 인해 폭력국회가 되고 말았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정치운리가 실종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데 열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하고, 가족 수당을 마련하고, 보좌관 수를 늘리는가 하면, 국회의원 퇴직 후 월 120만원이라는 특별연금을 타도록 법을 개정하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행태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다. 그들은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연금을 받을 요량인 것이다. 이런 그들이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관계법에서 약속해 놓고도 3년을 질질 끌고 있다. 이쯤 되면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권력기

특별기고



남 시육

- 본회 회우
- 전 문화일보 사장
- 세종대 석좌교수

관으로 타락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탈선행위를 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당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인기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잘못된 정당정치에 염증을 일으킨 국민들의 반응이다. 그런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이명박 대통령

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안철수 현상', 즉 국민들이 현상타파를 요구하고 있는데는 이 대통령 자신도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성급한 가상 여론조사 이해안돼

안철수 현상에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언론은 국회와 정당들이 이런 모습으로 추락하는데 일조를 했다. 언론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묵인 내지 방조한 경우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교수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뜻을 비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상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안 교수가 위기에 빠진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구할 인물인가. 안 교수는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뛰어난 수재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

을 갖추었는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이념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나이브한 견해를 토로했다. 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바로 벌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이념대립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국내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념이 무용지물이라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신조와 정책적 견해는 이념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념문제를 이처럼 경시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식견을 의심케 한다.

안 교수 뿐 아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당연히 그들을 검증해야 한다. 인기조사는 언론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시되어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여론조사대상자가 후보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기조사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언론의 분발을 바란다. [국문]

政治人 자업자득에 言論도 一助 '안철수'등 철저한 이념검증 필요

2011 대한언론상 수상자 결정

수상자

- 취재 보도 부문
김정윤 SBS 보도 제작부 기자
- 논설 논평 부문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상식: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대한언론인회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SBS 보도 제작부 김정윤 기자(취재 보도 부문)와 중앙일보 김 진 논설위원(논설 논평 부문)을 금년도 대한언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 윤기병(본회 부회장), 위원 : 도준호(본회이사), 김해도(본

회 편집고문), 문명호(본회 논설고문),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 이형균(본회 논설위원장). 간사 : 정운중(본회 상임이사)

※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에게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상식 후엔 소찬이 준비돼 있습니다.

4면에 공적사항 · 심사평

‘안철수 돌풍’은 국민 愚弄劇이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국체(國體)가 제대로 선 나라라면 이런 황당한 정치쇼는 빚어질 수가 없다. ‘안철수 돌풍’은 단 5일동안 전 국민의 열을 빼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대신 서있는 사람은 박원순이란 ‘돌발변수’의 인물이었다. 그는 서울시장을 하겠다며 시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 시민들은 마치 마술이라도 홀린 기분이다. 안철수는 대체 왜 나타나서 기성 정치판을 뒤흔들었고, 박원순이란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 촌극 같은 정치 희화(戲畵)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감상해야 할는지 난감하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났다. 안철수는 이 정치쇼에서 비참잡이 역할만 맡았고, 진짜 주연은 박원순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박원순이란 인물을 띄우기 위해서 안철수는 그의 데뷔무대만 마련해 준 뒤에 자신은 쏙 빠져 버렸다. 멋도 모르는 국민들 중에는 지지율이 50%나 되는 안철수가 지지율이 겨우 5%인 박원순에게 조건없이 시장(후보)자리를 내준 일을 두고 ‘위대한 양보’라고 찬양일색이다. 정말로 그럴까. 겉 그림만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어느 머리가 빈 사람이 굴러들어온 ‘로또복권의 거액당첨금’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남에게 그냥 희사하겠는가. 그 좁은 우리가 일단 생각했어야 한다.

정치관이란 의리도 정의도 없는 곳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너무도 흔해 빠진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물밑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이면합의’가 그 수십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될 기회를 양보했지만 예기치 못한 엄청난 국민 지지도에 그 자신도 깜짝 놀라 시장자리 정도는 계륜(鷄肋)쯤으로 여기고 보다 큰 야망(大願)을 불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던져 준 떡을 납죽 받아먹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락 과정을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대선을 향한 ‘학습효과’로 삼을 개연성도

특별기고



지 용 우

• 본회 6·25 참전 동우회 간사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내세운 박원순은 어떤 인물인가. 절대 간단치 않은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그는 좌익이다.

무슨 근거로 단정하느냐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더 많은 공을 쏟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보안법폐지론자다. 자신의 저서 ‘국가보

안법 연구’ 1, 2, 3(1990. 7)을 통해 “이제는 국가보안법시대에서 민족자유, 통일시대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역설했다. 이론인 즉 그럴싸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한반도는 분단 대치상태고 종전이 아니라 휴전중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한 언동이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이 땅에 공산당까지 허용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지도 모른다.

2002년 미션아·효순이 사건 때는 반미 촛불시위로 주도했고, 천안함폭침 때는 그가 창립한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공개서한을 유엔

에 보내 국제무대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노골적인 이적행위를 한 좌경단체의 장이다. 어디 그뿐인가. 2009년 12월 17일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이런 상황일수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등 오로지 북한편만 들었다. 박원순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이 이상 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만일 안철수가 박원순의 이런 행적을 알면서도 그를 서울시장으로 밀었다면 그 또한 동조 세력의 한 사람일 뿐이다.

언론은 중심 잡아야 한다

이런 불순성분의 좌파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중심축인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를 맡기자고? 율법이나 할 말인가. 그리 되면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범민련, 진보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국내 좌익, 진보단체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종북, 반정부 활동을 한층 더 노골화하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안철수도 박원순도 정치는 ABC도 모르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다. 국가는 컴퓨터바이러스 연구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물이 아니다. 나라안에서 문제만 일으켰지 정치는 고사하고 통·반장도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좌파인물 박원순에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의 시장자리를 맡기자고?

국민들은 안철수 돌풍에 넋놓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헤아려 보고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그래야 ‘타이타닉호의 최후’ 같은 비운을 미리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4]

더 큰판 노린 깜짝 政治쇼 의심 박원순 左派 행적 철저 규명을

충분히 내다 보인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돌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 다음번에는 허리케인급 태풍으로 커져서 대선판도에 불가예측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공산이 없지 않다. 안철수 자신은 대권도 전의사 타진에 펄쩍 뛰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합니까?” 반문하면서 “그 정도면 답이 된거죠?”하는 식으로 대권도전 타진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정적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위한 제스처로 보는 것이 순리다.

안철수가 미는 박원순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안철수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충분히 내다 보인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돌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 다음번에는 허리케인급 태풍으로 커져서 대선판도에 불가예측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공산이 없지 않다. 안철수 자신은 대권도 전의사 타진에 펄쩍 뛰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합니까?” 반문하면서 “그 정도면 답이 된거죠?”하는 식으로 대권도전 타진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정적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위한 제스처로 보는 것이 순리다.

2002년 미션아·효순이 사건 때는 반미 촛불시위로 주도했고, 천안함폭침 때는 그가 창립한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공개서한을 유엔

‘安風’ 언론의 과잉보도로 커졌다

최근 신문 방송들은 안철수 교수·박원순 변호사 보도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서울시장후보와 대선후보 지지율을 자체 여론조사한 것이나 또는 여론조사처에 의뢰한 것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 몇가지를 보면 △안철수 바람 타고 서울시장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 박원순이라 보도하고(중앙일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상 양자대결에서 지지율은 박원순 변호사 46.5%, 한나라당 나경원 36.2%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또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자간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33.5%로 1위로 나타났고, 대선출마의사가 전

혀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가 16%로 2위에 올랐으며 이어 문재인 순화규순이다.

그러나 가상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교수가 44.9% 박근혜 전 대표가 42.6%로 안교수가 오차 범위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 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안철수·박원순씨가 어떤 사람인지 일반 서울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기존정당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덮어놓고 찬성하는 응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정당이 보기 싫다고 처음듣는 사람을 찬성한다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허다하니

올바른 여론조사가 안된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옳게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그렇게 계속 떠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기사만 쓰지 않고 그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이다.

어떻게 보면 언론측에서는 독자 또는 청취자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보도한 것이지, 진실성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민들은 더뚱뚱했다. 보도에 안풍이 일고 있는 것을 보고 안철수쇼에 언론이 놀아난다는 비판들이 많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곽노현 사태’ 교육 정상화 계기로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서울중앙지검이 곽노현 선거사범 피의자를 9월 21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서울시 전직 현직 교육감 2명이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 사람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전교조가 배척했던 사람이다. 전교조의 교육좌경 정치화 드라마의 대 단원을 우리는 관망하고 있다. 관객들은 구속기소된 곽노현 피의자와 그를 지지하는 중북좌파의 투철한 이념 결사와 이들의 반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태도에 모두 놀라고 있다.

2011년 한국교육계를 놀라게한 ‘곽노현 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공인한 전교조 10년 좌편향 정치교육과 중도실용을 표방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절묘한 조합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곽노현 사태로 공교육이 파산되고 신성시 했던 교육자의 도덕성과 권위까지 무너졌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학부모에게 교육계 비리 고발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계 정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과부의 무능과 교과부 산하기관의 부조리 및 도덕적 해이 사태가 줄을 이어 폭로돼도 MB정권은 책임자를 문책하지도 않고 전교조와 함께 가는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교육 현장은 중북좌파사관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교육평가원 등 교과부 산하기관의 부정부패 속출, 좌편향 교육감들의 교사평가 거부와 학생체벌 금지, 교실 파괴, 교권추락 등으로 막대한 골목으로 물리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위반사태는 의법처리 하겠지 만 교육자치제 시정이나 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전교조 조직과 이데올로기는 뿌리가 깊고 견고하지만, MB정부 교과부의 문제 해결 의지나 능력이 박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첩보를 받은 서울중앙 지검 공안부가 곽노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자 전교조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했으나 검찰은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기소 했다. 곽노현 사태로 서울시 교육은 전교조 파행 교육에서 벗어날 전기를 맞긴하다.

그러나 교육감, 교과부 고위 직, 국회 교과위원회 의원, 국회 전문위원, 대통령 교육관련 비서관 등 교육 행정을 결정하는 요직에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 근본문제 접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10년 전교조 출신 등 좌편향 세력이 지자체 교육감으로 등장한 후 무상급식 파동,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학생 제재 금지로 인한 교권 추락, 일제고사와 교

특별기고



박석흥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 언론법학회 이사

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권 교체기마다 법원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서울법대와 고시 출신이었다. 거짓인줄 알면서도 사실 왜곡을 서슴없이 하는 반국가 좌익지식인들의 의식과 그들이 받은 교육도 문제다.

‘곽노현 사태’에 직접 개입한 한 전직 교수도 곽노현 사태가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한명숙 전총리에 대

정치화 부작용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과열 정치화로 교육계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전락시키고 전교조 세력이 적은 지지를 받고도 교육행정을 장악하는 불합리한 선거 모순을 초래했다. 17% 지지를 받고도 좌파들의 연합으로 선거에 승리한 이번이 연출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돈과 자리까지 거대한 부정선거로 서울시 교육을 정치도 구화했다. 교육 본질보다 정치적 득실과 이념선전을 우선시하는 좌편향 친북 정치세력의 교육 정치화에서 교육 파행이 비롯된 것이다.

전교조 교육감 뿐만아니라 좌편향교육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 언론 법조 국회 행정부에 포진해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은 ‘곽노현사태’ 이상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교육을 중북좌파의 정치 음모와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기초 공교육의 게이트 키퍼인 교육감 선출 제도부터 개선평야 한다. 1인당 40억원의 선거 비용을 투입하고도 부적격자를 뽑는 현교육감

직선제 대신 교육감 공모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 언론이 공동으로 교육감을 공모해 청문회 등을 거쳐 응모자중 3~4명을 교과부에 올리고 교과부가 2~3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차관급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제와 지자체장의 교육감 임명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교육감은 지자체보다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명박대통령은 좌편향정부 시대의 중북이념과 정치교육으로 망가진 교육을 서둘러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한 전교조의 친북교육문제를 전면 검토해야 할 것이며 법정부서 김점일 등 주적을 찬양해도 묵과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를 광정해야 할 것이다. 독일처럼 공직사회에서 반국가 세력과 파렴치범들을 숙아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를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맡기 전까지는 교육 정상화는 그림의 떡이다. 교육과 문화를 바로잡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권고한다. [국문]

요직점거 운동권인사 정리 시급 교육감 공모제등 보완책 마련을

원평가제 반대 등으로 초 중 고교 학교 현장은 이수라장이 되었다.

전교조의 정치이념 확산과 다음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으로 MB정권 말기 학교교육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적국의 간첩이 침투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면 전쟁 도발로 간주해 선전포고를 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곽노현 사태’로 초 중 고교 교육 파괴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박명기 교육감 출마지는 서울사태를 졸업한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교대 교수였으며 곽노현 피의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방조한 3인방은 서울법대 동기들이다. ‘곽노현 사태’를 검찰이 공개한 후에도 이들은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오히려 검찰과 여론을 비난했다.

얼굴 두꺼운 범죄 혐의자들의 확산범죄를 보여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을 3년간 기고했던 헌법학자 김철수 권영성 허영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론을 펴는 대학교수들이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을 교육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법대 교육에 문제

한 공세를 연상케 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검찰과 신문을 비난했다. 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알만한 사람이 ‘곽노현 사태’를 정치 싸움으로 포장해 진실을 흐리게 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도 전직 대통령 총리 재벌 등 파워엘리트의 범죄를 파악하고도 정치적으로 처리한 것 같이 보여서 반국가 세력들에게 역공할 기회를 준 것은 반성할 점이다.

검찰과 법원은 ‘곽노현사태’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 이런 선전선동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당대표가 “곽노현은 책임 있게 처신 하라”고 비판했던 제일 야당의 곽노현 감싸기 변화 기류와 좌파들의 곽노현 살리기 연합전선에 검찰과 법원이 이슬우화의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곽노현 사태’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곽노현 피의자가 혼자 당했다고 원망하지 않게 검찰은 2010년 6월에 있었던 다른 지역 선거 부정도 차제에 밝혀야 할 것이다.

MB정부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도 검토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곽노현 사태’의 본질은 교육의 지나친

2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러고 이런글도 인터넷에 뜨고 있다. “...박원순 이 분 아름다운재단에서 자금 지원하는 단체도 전부 정치적인 친북 단체들에 지원하고, 안철수님 주식 직원들에게 몽땅 기부했다고 ‘무릎팍’에서 말해 좋은 분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37% 1800억치 주식소유하고 계시네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신거예요?” 어쨌든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고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이유는 몇가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안교수의 부친 안영모(81) 부산법원의 원 원장은 “나도 반대 했지만 집사람이 더 반대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100% 말리려한다. 이유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어렵다는 말에는 자금문제, 조직문제, 인기문제, 되고나서의 리더십 등 모든것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지지율은 반짝거품이라고 했다. 당대표가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을까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당이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런 당이 추천하는 서울시장후보는 반드시 당선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 모두는 안철수 쇼를 보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다가오는 서울시장후보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복이후 한동안은 정당 당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율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당수는 자주 바뀌고 또 당수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럴수록 당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후보를 내는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지금 시민들은 안철수·박원순 쇼를 보고 언론들의 과잉 보도, 정당들의 불안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라도 안철수교수 등의 쇼는 소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다. [국문]

우리시대 言官-史官-巨人 재조명

후석(後石) 천관우(千寬宇) 선생 20주기를 맞아 추모문집이 출간된다.

천관우 선생 추모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혜복)는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우리시대 언론 사관, 거인 천관우' 출판기념회를 갖고 언론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후석을 추모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대한언론인회와 서울언론인회가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우리시대 언론 사관, 거인 천관우' 추모문집은 '인물은 가도 발자취는 뚜렷하다'는 '추모문집 편찬위원회'의 발간사에 이어 62명의 필자들이 신구관 700쪽에 걸쳐 언론, 사학, 민주화 분야에서 후석 천관우 선생이 남긴 큰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글을 실고 있다.

이 추모문집은 지난해 1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이혜복, 권도홍, 남재희, 강승훈, 남시욱, 여영무, 홍원기, 민현구, 이병대, 맹태균씨 등 언론계 및 사학계 인사 23명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원장에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고문을 추대, 제반 준비를 해왔다.

권도홍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은 "언론인으로서는 후석은 비판과 문장력에서 타(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하무적이었고 사학계에서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준엄한 사관(史官)의 눈으로 논정한 이 시대의 큰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최정호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후석 선생은 여러 개의 슈퍼라티브(Super-latives)가 항상 따라 붙은 이 시대의 거인으로 미디어(언론사)를 초월해서 메시지(언론인)를 가졌던 큰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후석의



추모문집 표지

글은 꾸미되 그 흔적이 없는 명문(名文)이었고 열정과 강직의 일생으로 나라가 필요로 하는 국사(國史)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는 "후석이 언론인, 사학자, 민주화 투쟁의 거목으로 의병장같이 편집권을 지킨 큰 그릇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학자로서의 후석에 대해 민현구 전 고려대 교수 등은 후석과

의 술자리가 바로 특강자리였고 학문적 독창성과 치밀함은 단연 사학계의 독보적 존재였다고 회고했다.

후석 천관우 선생은 1925년 충북 제천 출신으로 청주고 등을 거쳐 경성제대에

입학, 해방 후 서울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8세때 동아일보에 신동(神童)으로 보도되는 등 어릴 때부터 재기가 넘쳤고 대학 졸업 논문인 '반계유형원 연구'는 지도교수 이병도 박사로부터 '군계일학'의 우수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논문을 효시로 실학 연구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석 천관우 선생은 1951년 6·25 전쟁 중 부산에서 대한통선에 기자로 입문, 33세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한국일보 논설위원, 민국일보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63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65년 주필 등을 지냈다.

후석은 언론계에서 사관(史官)의 시각으로 편집권을 수호했고 7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 뒤 한국일보 고문과 사빈으로 재직 중 폐암 수술 후 1991년 1월 15일 향년 66세로 영면하였다.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하는 후석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출판기념회에 많은 화우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

이병대(본회부회장)

2011 대한 언론상 영광의 얼굴 <수상자 공적사항>

국가시험 부정-담합 유혹 파헤쳐

김정운 SBS 보도제작부 기자

SBS보도제작부 김정운 기자는 2010년 1월부터 SBS 보도제작부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별히 SBS 뉴스추적 '충격실태-국가시험이 샌다'(580회)에서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 국가시험의 부정과 담합의혹을 심층 취재해 그 충격적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고발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논리정연한 '시시각각' 칼럼 공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의 기명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을 통해 항상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국정현안을 심층 분석 평가해 독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가적 중대 현안 및 현상을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도 균형있는 시각으로 사안의 실체와 의미를 올바르게 깊이 있게 진단, 논평하는 등 수준 높은 칼럼을 다수 집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



윤기병 심사위원장
(본회 부회장)

올해 제20회 언론상 심사는 다른 해에 비해 비교적 순조로웠다. 9월 14일 제1차 심사회의와 9월 22일 제2차 심사회의에서 심

사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기획취재 보도 및 논설-논평 2개 부문에서 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취재 보도 부문에서 SBS보도제작부 김정운 기자의 뉴스추적 '충격실태-국가시험이 샌다'와 논설-논평 부문에서는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지난 1년간 쓴 칼럼이 다른 심사대상보다 월등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김 기자의 '국가시험이 샌다'는 의

사, 교사선발 국가시험의 담합, 부정실상을 폭로, 고발함으로써 국가시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짜임새 있는 문장,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 평가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취재보도 부문의 심사에 올랐

던 여러 건이 수상후보로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나 '국가시험이 샌다'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설적' 보도가 더 좋게 평가되었다.

올해 대한언론상 심사를 하면서 우리 언론의 보도, 논평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참으로 걱정거리였다. 좌파들의 운동장이 된지 오래됐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의 권한과 책임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교과부 장관은 그것의 수정 권한도 있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되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논란이 되어온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백적간두에서 살린 미국과 유엔의 파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전연 없다. 마치 이들의 개입이 없었으면 민족통일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

1948년4월 김구 김규식과 김일성의 평양회담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의 순진한 노력이 김일성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몇몇 교과서

교과서 왜곡 왜 못고치나

는 북한의 인권, 핵개발, 식량위기에 대해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서술을 했다. 3대 권력세습에 대해서는 '권력 계승' '후계 구축' 등으로 표현했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장은 2쪽에 걸쳐 길게 설명해 마치 진짜 개방에 나선 것 같은 착각을 준다. 경



천상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 경기대 초빙교수

제부문에선 대외의존 산업불균형 빈부격차 근로자 농민의 희생은 자세히 서술되지만, 주도면밀하고 과감한 경제개발계획과 집행은 평가절하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가져온 혜택에는 눈을 감았다. 전체적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독재자로 폄하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현대사를 둘러싼 좌파와의 대결에서는 한 번도 시원한 소식을 들려준 적이 없다. 최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쳤다고 난리다. 역사 교육과정 초안을 제출했던 위원 24명 중 21명이 자신들이 개발한 초안을 교과부가 변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방한한 민주주의이론 대가 미국 스탠퍼드대 다이아몬드 교수도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논쟁은 한국 좌파가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

5면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새 패러다임 필요하다

21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비틀거리고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지구상 유일한 경제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에도 금이 가고 회의론이 일고 있다. 2008년 탐욕스런 은행들의 금융파산상품 파탄이 빚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금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먹구름은 자본주의 신화에 불명예를 선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이제 경제전문가도 자본주의가 경제의 만능해결사라는 전설을 믿지 않게 됐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유통기간이 다 되었다는 경제학자들의 진단과 함께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자본주의 4.0’도 이런 맥락의 결과물이다.

자본주의가 위기가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해 위기를 해결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는 자본주의 옹호론자들도 요즘은 침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더블딥의 위험성을 안고 왔지만 끝내 ‘보이지 않는 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단 한 줄로 언급했던 이 조항을 일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위기의 해법으로 너무 믿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최근 경제현상은 더블딥(double dip·경제가 회복한 후 다시 침체된 현상) 상황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은 주가의 급격한 조정과 심한 변동성이 강타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유럽 국가들의 부채위기, 미국의 재정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등 연이은 악재들이 시장자유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경제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자 그 여파는 중국과 남미 등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하던 신흥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잠재능력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니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득의 양극화다.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취약점은 소득 양극화다. 양극화는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정부 권력으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이루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재벌)의 비대화가 천문학적 수치로 이뤄져 지금은 정부나 종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오해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본주의 경제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는 미국은 2008



김 화

- 보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논설실장

로 나왔다. 18세기 미국의 독립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시작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1.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2.0), 1970년 말 시작해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3.0)이다. 자본주의가 생존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 4.0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2011년 8

월 정사회’를 어젠다로 내세웠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다.

한국사회는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2011년 4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지난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으나 하위 20% 1인당 소득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하면서 10년 간 경제성장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에게도 해당된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5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그쳤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상위 20% 소득비율은 1999년 63.4%에서 2009년 71.4%로 10년 새 8% 포인트 높

아졌다. 또 50세 이상 자산분포 현황도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해 자산 불평등도 소득불평등 못지않게 심각하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약50만명)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편중현상도 심각하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관점은 틀린 것으로 역사가 증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최근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마르크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은 듯하다.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만 알지 ‘도덕 감정론’은 모른 것일까. 개인의 이기심이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지만 지나친 탐욕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도 명확하다. 스미스는 훗날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력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 염려는 오늘날 현실로 나타났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은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율적 절제와 이를 통한 자생적 사회규범을 주장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가 100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력을 현미경으로 보듯 내다보고 충고한 명언이다. [\[4\]](#)

소득 兩極化 해소 도덕성 확립 시급

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국가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었고 연방정부는 재정적으로 허약한 상태다. 다행히 달러가 기축통화라 버티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은 미국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난 해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47%가 자본주의가 싫다고 했다.

최근 신사의 나라 영국과 사회기강이 확립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생존권 대중시위, 중국 농공민들의 산발적인 반정부 시위 분노의 근원은 소득 양극화 심화, 물가 폭등, 빈곤의 수렁, 실업, 무너진 계급 사다리, 희망이 없는 암담한 현실 같은 동일한 사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 특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층은 부자들은 소득을 늘려가는 데 비해 자기들은 소득과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고통스런 현실을 절망하며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장과 계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계급 사다리의 오르내림이 활발하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는 앵글로색슨 모델과 재정적자로 간신히 유지되는 그리스 같은 복지국가 모델 양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두 모델 모두 실패했음이 현실로 입증하고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란 저서에서 18세기 이후 작금의 경제위기 이전까지 자본주의 변화를 3단계

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까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절망과 회의의 해였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진화의 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치선전’, ‘경제학의 오만과 자기 과신’을 꼽았다. 그는 “시장근본주의자가 마르크스보다 자본주의에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좌파의 주장도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이상적인 제도라고 확신한다면 4.0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는 연명한다.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 보자. 한국경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은 진보정권 10년을 거쳐 이명박정부 들어 사회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양극화의 뿌리는 지난 60~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대도시와 신흥공업지역에 급격한 부의 축적을 이루게 했고 일부 계층은 재벌로 성장해 여타 계층은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하면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도왔고, 감세정책으로 재벌의 날개를 달아줘 중소기업에 위축시키고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 대통령의 ‘747 정책’은 성공할 수 없게 되었고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반발이 심하자 뒤늦게 ‘친서민정책’과 ‘공

도 학생들에게 애국심이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목적을 내포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나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가 대부분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편향적 입장에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다시 ‘민주주의’ 용어 하나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조차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을 시정해 달라고 개정 의의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왔다. 북한 편향교과서가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이 끝나고 이

명박 정부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근현대사 교과서 왜곡을 바로 잡기가 이따지도 어려운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 때문인지 좌파들의 좌충우돌 하이 킥에 움쪽달짝 못하고 복지논쟁에 허우적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까…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일깨워야 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조차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집권 4년 동안 교육정책이 직무유기가 아닌지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는 용어는 냉전시대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 남북대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헌법 전문과 1장에 들어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혼

용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옛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는 예외 없이 독재로 흘렀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보다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권력에 대한 통제’ ‘법치주의’ ‘정부의 투명성’ ‘인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국사 교육은 어느 나라

‘北통과 가스관’ 兩極化시각 노출

현인택 퇴임과 류우익 통일부장관 지명 후 조계종의 대규모 방북과 정명훈의 평양지휘가 있었다. 천안함 폭침 후 정부는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으면 어떤 경제교류도 중단하겠다고 5·24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으로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믿을 국민은 적을 것이다. 올해에는 해마다 수천 명씩 별세한다는 월남 이산가족들을 위한 추석절 이산가족상봉 ‘이벤트’도 없었다.

지난 8월2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과 회동한 다음날 “11월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연막을 피웠다. 이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구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APEC, G20,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러시아 정상과 만나기 때문에 가스관 사업을 구체화할 논의가 유력시된다. 이미 2008년 한·러 정상이 이를 합의했고 지난 8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천연가스 통과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가스관부설에 대해 신문들은 또 양극화한 시각을 보였다. 문화일보는 ‘北통과 가스관은 안보리스크 키울 幻想’ (9월2일), ‘李대통령의 北통과 가스관 인식, 국가安保 안 보인다’ (9월9일) 등 3차례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북한에 가스관을 깔아 북한 핵개발이나 도발 버릇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국가 안보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당위론에 팔아넘기는 무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은 “남과 북 러시아 세 나라가 ‘원원’ 하는 일이어서 한 번 깔렸다 하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김정일의 핵 포기 가능성을 낙관하고 가스관을 깔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지면서 “북·러에 에너지 안보의 ‘키’를 쥐어주

는 건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금강산·개성공단도 모자라 또 1년에 1~2억 달러의 통과료를 내서 가스관을 북한의 인질로 갖다 바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가스관건설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옳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남·북·러 협력을 위한 장기 전략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태도는 비합

신문시평



김영한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保守紙 “국가적 재앙우려” 반대 社說 左派紙 “북한변화 유도” 낙관적 접근

리적인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9월3일 ‘국가 재앙 걱정되는 북한 통과 가스관’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은 문서로 된 국가 간 합의도 밥먹듯 깨는 집단이다. 미국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던 신포 경수로를 집어삼켰다. 남북 합의를 깨고 금강산의 남한 부동산과 장비를 강탈했다. 북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가스관을 건설하면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8월22일 ‘남·북·러 경제 협도 핵문제 해결이 관건’이란 사설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등 남·북·러 3자가 함께 추진하는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 전망이 가시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기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본격 추진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선결과제를 현명하게 짚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9월5일 ‘한·러 가스관 부설 반대는 근시안적이다’란 사설

달하는 지역에 수많은 외부인이 들어가… 엄청난 공사로 북한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거이전은커녕 여행의 자유도 제한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통제 사회 북한에서 가스관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설부른 낙관이다. 지금의 경색된 관계도 북한의 호전성의 결과물 이므로 북한의 변화에 관한 보증이 없는 한 미래 역시 현재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안보상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가스관은 어렵다. 1,000Km 주변의 광활한 면적을 ‘잡질’하는 환경과피도 따져봐야 했다.

한겨레신문은 8월26일 ‘남·북·러 가스관 건설,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사설에서 “(정부는)핵문제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야 대규모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기왕의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옳지 않다. 그런 경직된 태도 때문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한반도 주변 국

제정세에서 남쪽의 처지도 궁색해졌다. 경제적 타당성과 남북관계 복원의 매개고리 가능성을 함께 지닌 가스관 사업…”이라면서 경색 원인을 남측에 돌렸다. 이런 시각이 북한에게 남한을 오판하도록 돕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문화일보는 8월30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은 도발을 저지른 북한에 있다. 그럼에도 대북 유화책을 모색한다면 이미 사산한 햇볕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거나 똑같다. 도발엔 반드시 상응한 대가와 희생을 돌려주는 것만이 재도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자명한 대북 원칙을 포기하면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국정원은 가장 효과적인 북한 해방수단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자출신 북한자유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독침 테러하려던 혐의로 북한 간첩을 구속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대한민국 내 김정일 비판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암살 기도가 또다시

현실로 드러났다.…” 1975년 월남 패망 전 당시 월맹은 월남 내부의 반공 인사들을 무차별 암살함으로써 반공세력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검찰·경찰·군 정보 당국은 대북 원칙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정치인·학자·종교인·언론인·대북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북한민주화 운동가에 독침 테러 기도한 北’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의 대남공작과 테러 기도가 비상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TV 시청도 자유롭게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차단된 폐쇄사회에서 대북 전단은 진실을 알리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기만과 국제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 날리기는 북한의 테러 기도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들은 독침테러기도 간첩 구속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1]

같이 군대생활을 한 친구가 제대 후 시청근처에 스포츠과학센터라는 것을 세우고 “스포츠는 과학이어야 한다”는 홍보를 부지런히 한 일이 있었다. 그는 서울사대 체육과출신으로 공군에서 검도시범으로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한국 체육계를 과학화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언론사도 찾아다니고 친구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0년 전쯤의 일이어서 그런지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에 가서 뛰고 던지는 것을 보면서 육상은 과학이어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사인 볼트로 대표되는 남자 100미터에서 보면 10초 이내로 뛰어야 등수에 들어가는 데 10초 이내로 뛰려면 42~45걸음으로 달려야 한다. 한 걸음이 적어도 2미터20센티를 넘어야 한다.

선수들의 달리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유심히 보면 발바닥 전부가 땅에 닿지 않고 마치 사슴이나 영양이 초원을 뛸듯

발 앞부분으로 땅을 가르고 뒤꿈치로는 공기를 차올리면서 바람에 동동 떠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라토너들도 땅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땅위의 공기를 타고 동동 떠가는 모습으로 24km 이상을 뛰는 선수들이 결국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2시간을 뛰고도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창던지기는 누가 봐도 과학적 계산을 확연히 할 수 있게 하는 종목이었다. 창

科學이 뜬 대구육상대회



정일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던지기 결승이 있는 날은 운동장 안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던진 창과 그렇지 못한 창이 날아가는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멀리 가는 창 특히 우승을 한 선수의 창은 선수의 어깨를 떠난 후 전체 거리의 3분의 1 정도를 거의 수평으로 날아갔고 다른 창들은 처음부터 30~40도 정도의 비스듬한 모습으로 공중을 차고 올랐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창은 공기 저항을 창의 맨 앞쪽만 받기 때문에 창 전체가 흔들림이 없이 곧장 날아가다가 일정한 거리에서 로켓모양으로 붕 솟아

오르면서 그때부터 30내지 40도 정도의 각도로 전진했다. 처음부터 30~40도 각도를 갖고 선수의 어깨를 떠난 창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하늘로 솟아도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치솟는 창의 거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투창은 같은 힘이라면 던지는 창의 각도가 결정적이었다.

한국의 육상은 과학이 더 있어야 한다. 제한된 선수를 갖고라도 컴퓨터에 달리고 뛰고 던지는 모습을 동선으로 그려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서 보다 체계적 훈련을 해야 한다.

힘의 배분, 손과 발의 움직이는 모습, 공기저항의 흐름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과학적 연구를 한다면 올림픽 4위권, 월드컵 4위권 나라에서 육상메달 하나쯤 따지 못하라는 법이 있겠는가.

과학적 분석법을 갖고 선수도 찾아내고 찾아낸 선수를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성공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대구대회에서 얻어야 할 것이다. [2]

곽노현 목소리 키워준 TV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는 뉴스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2011년 8월 26일, 같은 날에 터져 나왔다. 이날부터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던 9월 10일 까지, 15일 간 TV 3사의 메인 뉴스가 보도한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첫날 뉴스부터 TV 3사의 메인 뉴스인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시 뉴스는 모두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지나치다는 이미지를 담아 보도했다. KBS는 관련 리포트의 8개 문장 중 3개 문장에서 수사대상인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곽 교육감 측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관계자 녹취)”. “후보 단일화는 진보진영 단체의 중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금품이 오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이었다.

MBC도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어떤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관계자 녹취)”에 이어 기자의 끝 멘트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직후 수사가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보복수사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복수사라는 의미와 논란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SBS도 곽 교육감 측이 여론 전환용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과 거꾸로 검찰의 수사 착수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주체인 검찰과 수사 대상인 곽 교육감 측을 양자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8월28일은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주었다고 스스로 밝힌 날이다.

이날 TV 뉴스 들은 곽 교육감의 현란한 체언(贅言)들을 여과 없이 보도해서 시청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먼저 KBS의 경우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선의로 봤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대목의 영상에서 곽 교육감은 당당했고 마치 독립군에게 군자금이라도 준 듯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자신은 진보 개혁 성향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취임 이후 권력의 감시와 언론의 주시를 받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도 표적 수사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하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 지국장
· 수필가

9월 1일 곽 교육감은 “이미 총체적 진실을 얘기 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임하겠다”며 다시 현란한 말솜씨를 드러냈고 방송 뉴스는 이 말들을 생동감 있게 자막으로 강조하면서 보도 했다.

MBC의 경우는 “검찰의 계속된 압박에 그 동안 침묵하던 곽 교육감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

“실체적 진실은 이미 밝혔습니다. 진실이 저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지만 2억원을 준 것은 선의였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는 등 TV에서 펼쳐지는 곽 교육감 말의 성찬을 지켜보면서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지식인의 두 얼굴’이란 책의 내용이 새삼 떠올랐다. “검찰과 곽 교육감측이 팽팽히 맞서고...” “곽 교육감이 구치소로 떠나면서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과의 2차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라는 기자의 리포트가 풍기는 분위기도 여전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곽노현 교육감 관련 보도가 드러낸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정리해 본다. 본질 보다 겉가지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질은 단일화가 이뤄졌고 돈을 주었다는 것일 텐데 “왜 수사하느냐?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 합정 수사다”라는 등의 말이 지나치게 강조

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형국일 것이다. 또 곽노현을 감싸는 세력과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 간의 갈등 양상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선(善)이고 그 인격은 언제나 고매한 것이라고 맹신하고, 반대편은 반대의 정서와 자기 논리를 고집하는 사회적 암 증상을 그냥 전달하는 것만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는 것 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법 집행자와 범죄 피의자를 일대일(1:1)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므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의식을 덜게 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번드레한 말잔치에 방송이 거들면서 적지 않은 시청자의 판단을 헛갈리게 했다는 부분도 문제였다. 곽 교육감 관련 뉴스를 모니터 하면서 사실은 있는 대로 밝히고 잘못된 반성하고 사죄하는 소양과 용기를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하는 의구심에서 벗어 날 수가 없었다. [4]

검찰수사 비판 내용 여과없이 전달 피의사실 부인 현란한 말솜씨 부각

는 곽 교육감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열사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있었다.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 무관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거나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궤변도 전파를 타고 자랑(?)스럽게 퍼졌다.

MBC와 SBS의 보도도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거나 딱한 사정을 듣고 선의로 전달했다는 내용 등으로 곽 교육감 측을 옹호하고 싶어 하는 속내가 엿보이는 것이었다.

8월29일 뉴스에서도 민주당 까지 가세한 각계의 사퇴 압력에 “송구스럽지만 사퇴는 않겠습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주사회 공교육의 본질과 책무성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등의 교육감 주장과 변론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관련뉴스에서도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떼뻗하다”는 교육감 측 입장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으로 보입니다”라고 곽 교육감 측에 힘을 보태 주는 듯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9월5일 곽노현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날 방송뉴스는 다시 한 번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피의자 신분의 곽 교육감을 천칭의 양 끝에 놓는 듯한 평형(?)의 보도 자세를 보였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말과 “선의를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전 인격을 걸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곽 교육감의 말이 더 진한 여운을 남기게 하는 보도였다.

5일과 6일 두 차례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벌어진 곽 교육감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이 벌인 집단 시위 양태는 갈라져 갈 등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한 장면이었다. 곽 교육감이 영장 실심심사를 받은 9월 9일과 구속 수감된 10일은 그 동안의 보도가 집약된 듯한 양상을 보였다.

회우들이 펴낸 新刊

최종수 회우 ‘80청춘...’

‘80청춘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보다’라는 아담하고 예쁜 책(가로 세로 19cm×30cm의 변형판)이 나왔다. 80의 고개를 넘긴 노부부가 함께 엮어낸 주옥 같은 여행기이다. 최종수라면 지난 70년대부터 언론관계 전문지인 ‘신문과 방송’ 또는 ‘관훈연구’ 등에 ‘신문편집론’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꾸준히 소개해온 낯 익은 친구인데, 요즘에 와서는 엉뚱하게 외국 여행기쪽으로 방향을 돌린듯하다. 그는 재작년엔가 ‘80청춘 동유럽을 가다’라는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동유럽국가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상하게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까운 일본의 세토나이카이 해상에 있는 나오시마라는 섬을 방문하여 새로 조성되고 있는 현대 미술의 보고(寶庫)를 돌아

보고 개별적인 미술작품들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나오시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두 명의 주역, 즉 배넷세하우스재단 이사장인 후쿠다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원대한 비전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곳에 세워진 세 개의 미술관, 즉 동서양의 현대미술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미술관, 모네를 비롯한 3명의 빛의 작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지중 미술관, 그리고 오직 한국 작가 한 사람의 작품만을 전시하고 있는 이우환(李禹煥)

미술관이다. 저지는 이 미술관들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그들 소장품들을 개별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 곳에서는 기존의 헌집들을 현대적감각을 살려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재생시키는 소위 이에(家)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 6개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 미술작품은 주관적으로 감상하기는 쉬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저지는 다른 전문가들의 해설을 참고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작품들의 해설들이 비교적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저지의 현대미술에 대한 조예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 (500부 한정판 비매품 · 최종수 쓰고, 손인화 찍고 그러다)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삼성전자 SAMSUNG



끊임없이 새롭게 채워지는
3D콘텐츠와 스마트어플



당신의 스마트TV니까

대화면 무료영상통화 | 실시간 인터넷검색과 스마트팁 |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3D콘텐츠와 스마트어플 스마트TV의 [하늘과 땅차이] Samsung **SMART TV**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년 ~ 2010년 디스플레이서치 세계판매 기준

최근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자그마치 20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의 사람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은 3조 4000억 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47조 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나 수급자의 형편 즉 단신이나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 12만엔 전후가 된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68만원 가량된다. 우리나라에선 3.4인가족의 월 생활비다. 일본에서도 이 정도의 돈이면 독신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액수다.

NHK가 소개하는 한 생활보호자의 월 씀씀이는 이렇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다나카씨는 공사판을 전전하던 50대의 건강한 사람으로 3년전부터 일자리가 없어 생활보호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나카씨가 매달 오사카부로 부터 받는 돈은 12만 6000엔, 이가운데 살고있는 단칸방의 월세가 4만엔, 식료품구입비 약 4만엔을 지출하고 남는 4만 6000엔(64만5천원정도)으로 담배도 사 피우고 맥주도 사 마시고 취미인 비디오 테이프도 수집한다. 다나카씨의 수입은 또 있다. 생활 보호자는 의료보험이 무료이기때문에 매달 병원으로 부터 이핑계 저핑계로 14가지의 약을 무료로 타오는데 이를 다 먹을 수가 없을 뿐아니라 불필요하기때문에 상당 부분 내다 팔아 약 2만엔의 별도 수입을 챙기고 있다. 병원

‘거지천국’ 日本은 지금

은 약값과 진료비를 오사카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넉넉하게 처방함으로써 수가도 올리고 다나카씨의 부수입도 올려주는 일석 이조의 선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나카씨의 말로는 일할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금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말 현재 약 40만명의 20, 30대가 새로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 했다는것. 현재 27살인 이시이군의 사정을 소개해 보자.

이시이군은 작년말까지 한 중고차판매소의 직원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잘리면서 생활 보호대상자가 되었다. 이시이군이 매월 오사카부로부터 받는 돈은 11만6000엔. 현재 동거하고있는 애인이 아르바이트로 월 7만, 8만엔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둘이서 지내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시이군에게 고민은 영뚱한데 있다. 현재 애인이 임신중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도 과연 이런 생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식을 갖고도 생활보호금으로 산다는게 남보기 민망하다는 것이



조창화

• 본회 명예회장
• 전 KBS 일본 특파원

그의 고민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당황해 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을 돌보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치더라도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짜로 살겠다는데 까지 예산을 낭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8월말 일본 전국의 대도시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태를 타개하기위한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결론은 뾰족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일자리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리가 없다”고 배짱을 툭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다 못한 오사카부는 현재 800명의 케이스 워커(노동력있는 생활보호수령자를 찾아가 취업을 종용하는 사람)를 1000명으로 증원하고 본격적인 취업알선에 뛰어들었다.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취업을 설득하고 언제까지 시청으로 나오면 회사관계자들이 나와 면접을 하도록 주선할테니까 반드시 나오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 못갔다는것.

케이스 워커들이 대상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했으나 방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 주거나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궁리 끝에 앞으로 통보한 날짜에 출두하지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이번엔 또다른 복병이 케이스 워커들을 가로 막았다. 이른바 사회운동가들의 맹렬한 시위. 시청앞을 에워싼 이들 데모대는 “당국이 이들에게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 자살자가 속출 할 수있다. 당장 압박을 중지하라”고 성토했고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 당국은 정책을 바꾸어 생활보호자 심사단계에서 일자리를 알선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당사자들이 일할 의욕이 생겨야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해서 해결이 되겠느냐고 비난하고있는 상태다.

80년대 말 로스앤젤레스에 있을때 홈리스(거지)를 취재한 적이 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고장이라 미국 전역의 홈리스가 모여드는 곳이 사우스캘리포니아. 그당시 시청에 등록만하면 월 400여달러의 보조금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아침이 되면 맥도날드에서 특파원이나 홈리스가 같이 판케익을 먹는 고장 --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이웃 나라 일본의 등록 거지(생활보호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한달에 12만엔(약 70만원)을 받아 원룸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니 부러워해야하나 말아야하나. ☞

소설·史劇도 史實 떠날수 없다

한국인들은 역사에 흥미가 많고 관심이 큰 역사 민족이다. 한국인들이 역사책을 많이 읽고, TV 사극의 시청률이 높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인의 이런 역사 애호는 한국 역사학 연구자와 역사 드라마 작가들에겐 더 없이 비옥한 토양이다. 역사 지향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역사적인 사실(史實)’인 것처럼 오인케서술하는 것은 글을 쓰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학을 하면서 관련된 정치사를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에 흥미가 있어 학교를 나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역사책을 자주 읽었다. 그 때문에 역사에 마추어치고는 비교적 역사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서양의 역사서를 적잖이 접한 편이다. 분명히 나는 ‘역사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열심히 읽으면서 활용하는 ‘역사학도’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역사 소설가나 역사 드라마 작가는 역사학자나 역사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소설의 독자나 역사 드라마



구종서

• 본회 회우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문명사연구소장

시청자는 그들이 읽고 본 사실들을 역사학자들이 검증한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그의 벼슬 이름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작가나 해당출판사·방송사에 알려주기도 한다. 작가들은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역사소설이나 사극을

그냥 문학작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그것은 역사소설의 내용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일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뜻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러면 내용을 작가 맘대로 구성하고 떠나갈 수 있는 일반소설을 쓸 것이지, 왜 공개되고 잘 알려져 있는 역사 인물의 실명을 들어가면서 역사소설을 쓰는가.

역사소설이든 역사 드라마든 ‘역사’라는 접두사가 붙는 한, 그 안에는 반드시 역사가 들어 있어야 한다. 사실을 떠난 작품이 ‘역사적’이라고 형용되거나 수식될 수는 없다. 역사소설이 역사에 관한 소설인 한, 방송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인 한, 아무리 작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도 사실 자체를 벗어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언론가 소식

‘전시·비상상황 취재보도’ 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회우)은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동안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프레스클럽 회원과 많은 본회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규근(연합뉴스 군사안보전문기자), 김영욱(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박상수(KBS 심의실장),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윤원식(국방부 공보과장), 이정훈(동아일보 전문기자), 정동우(건국대 교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성황이론 컴퓨터 SNS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훈클럽과 함께 9월 1일부터 12월 8일 까지 컴퓨터 교육실에서 언론인 컴퓨터 SNS교육을 실시중이다. 이번 교육에는 구월환(전 세계일보 주필), 김영일(한국ABC협회 회장), 김진배(전 국회의원),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민병문(헤럴드경제 주필), 박 실(전 국회의원), 박기정(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봉두완(전 국회의원),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 신동호(전 스포츠조선 발행인) 회우 등 본회 회우들이 다수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설립 3주년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

극)은 9월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관훈동소재 신영기금회관 2층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우즈베크 문화예술 답사

관훈클럽은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우즈베크 문화예술 답사에 이어 고려인의 이주 및 정체성에 관한 세미나 행사를 가졌다.

이행사에 동참한 본회 회우는 다음과 같다. 권영국 김경철 김두호 김영수 남시욱 남재희 도준호 문명호 민병문 박기병 박석흥 박 실 성병욱 신성순 이시현 정진석 조용중 조창화 조찬용 최서영 홍순일 <가나다순>

KBS 제22기 시청자위원 위촉위원장 이형균 본회는설위원장

KBS는 제 22기 시청자위원 15명(임기 1년)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



원들은 학부모와 소비자,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변호사, 언론관계, 장애인과 노동 과학기술등 분야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본회 이형균 논설위원장(사진)이 맡았다. ☞

교열-소설 두바퀴... 말·글 사랑 식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9〉

회우초대석

閱

인터뷰 글·사진 이규

“이놈아가, ‘字學’을 하는 아이일세!”
閱 畿 기자가 퇴근 후 서울 사직동 명월네(숙칭:대머리집)에 들렀다. 먼저와 있던 경향신문 昔泉 吳宗植 편집국장에게 인사를 하자, 대작을 하던 金凡父 선생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閱 기자는, 교정기자라 하지 않고 ‘字學’으로 언급한 昔泉 선생의 교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미에 경탄했다고 술화한다. 자유당 정권 말기 시절이다.

閱 畿는 초지일관 교열기자로 언론계를 마감했고, 교열에 자긍심이 강했다. 말과 글에 대한 열정 또한 뜨거웠다. 언론 현장에선 ‘閱博’과 ‘道士’로 통했다. 간간한 성격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강직한 외골수로 ‘폭동주모자’ ‘정신병자’ ‘깡패’라는 악칭까지 들은 기인으로 통했다. 신문사 퇴직 후 한국교회사 연구소의 사전편찬 작업 봉직시절엔 집필, 편집, 교열 3개 위원직을 도맡아 ‘성스러운 선비’ 소리를 들었던 ‘字學 선비’다. 본회 閱 畿 원로회우를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자택에서 만났다. 지하철로 찾아오는 코스를 자상하게 설명하고 동·호수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산역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올해 여든 여섯. 우리나라 셈으로는 여든 일곱이지만 푹푹한 단신에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다.

“친구와 후배 등 내 집 초청은 처음”이라고 밝힌 노부부만 사는 아파트다. 방 두 곳은 국내의 서적으로 빼곡하다. 서재에는 문단의 선배 金東里 선생이 1973년에 써 주었다는 ‘雲歸山 水歸海’ 휘호가 색이 바랜 채 걸려 있다. 거실의 소박한 소파와 얹은뱅이 탁자가 주인의 성품처럼 군더더기 없다.

외국서적코너 ‘단골 立讀翁’

-건강은 어떻게 챙기세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하면서 병력이 많았으나 오기로 버티면서 극복했기에 면역이 생긴 것 같다”면서 “큰 불편은 없다”고 한다. 기자 초년 시절엔 수면을 빼앗긴 바쁜 나날 속에 영양실조로 저혈압에 시달렸다. 심한 노이로제에 정신분열증에도 있었다. 술은 반주로 소주 한 잔 할 정도로 끊다시피 했지만 담배는 아내의 지청구를 들으면서 여전히 피운다는 것. 베란다 귀퉁이가 흡연실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아내와 함께 안양천변을 산책하며 가벼운 운동을 했지만 요즘은 잠나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들러 책을 읽는 게 소일거리이자 운동”이라고 말한다. 한 때 북클럽 모범회원이었던 그는 대형서점 외국서적코너 ‘단골 立讀翁’을 자처하며 “도서관처럼 이용 한다”는 것.

-요즘도 집필 활동은 하시는지요?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설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정신은 오히려 황폐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는 건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힘든 사회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말과 글에 관한 원고

와 잡문을 가끔씩 집필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지난 봄 고락을 함께 했던 시인 李敬南 선생의 조사를 쓴 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

-여행은 새로운 세상과의 소통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곳,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 좋아하는 소설의 좋아하는 주인공이 살았던 장소 등을 주로 둘러보았지요.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공원, 톨스토이박물관을 비롯하여 실크로드의 中心路 사마르칸드, 몽골 대초원 등을 누볐지만, 천연의 자연 분지 안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도시 중국의 敦煌과 낙타를 타고 둘러 본 오아시스 月牙泉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서울신문 수습기자 1기로 출발하여 교열부에만 근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울대 문리과대 어문학부에 다니던 시절 6·25가 터져 부산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학업은 중단 됐어요. 수복 후 경기도 양평 용문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중 서울신문 견습기자 모집 벽보 社告

를 보고 원서를 내 합격했어요” 1차 필기시험에 7명이 합격했고, 최종 면접에서 2명이 뽑혔다. 그는 교정부를 자원했고, 예과 동기생인 嚴基成은 사회부로 갔다. 당시 사회부장 吳蘇白은 점심을 사며 사회부 근무를 권했고, 정치부와 문화부에서도 오라고 했다. “싫어질 때까지 교정부에 있겠으니 그대로 놓아두십시오”라고 거절했다. “나의 꿈인 문학을 위해 교열은 단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宋基鳳 교열부장 밑에서 교정·교열을 꼼꼼히 배우면서 교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한 신문사 두 번 입사 3곳

-교열기자로 명성을 떨치며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니셨지요?

“절세처럼 떠돌아 다녔어요. 당시 서울 시내 5대 일간지 가운데 한 신문사에 두 번씩 입사와 퇴사를 한 신문사는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3곳이었지요. 이밖에도 신아일보 교열부 차장, 중앙일보 교열부장 대우, 현대경제일보·

일요신문 편집부국장대우 교열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많았지만 강직한 성품 탓에 수틀리면 사표를 냈고, 늘 주머니에 날짜를 비워 둔 사직서를 넣고 다녔다. 신문사 근무 40여 년 동안 18번 사표를 쓰고 9번은 수리가 안됐다고 한다.

-강직한 성품 탓에 에피소드도 많았지요?

“경향신문에 근무하던 두 번 다 韓昌愚 선생이 사장이었어요. 正論을 편 대쪽 같은 분이십니다. 가관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의 어느 날 최종 강판이 늦어지자 韓 사장은 교정부에 대고 “교정부 놈들은 눈깔 두 개 필요 없어! 한 개 빼버리고 해! 발가락으로 교정을 봐도 벌써 다 했겠다. 그래도 이렇게 늦진 않겠다”고 화를 벌컥 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 갈 대쪽같은 성미의 閱 畿가 아니던가.

“사장 눈깔도 두 개가 필요 없다! 한 개는 빼서 포켓에 담아가지고, 한 개로만 감독해도 충분하다”고 되받았다.



“교열기자와 작가인생의 후회는 없다”는 ‘字學 선비’ 閱 畿 원로회우.

修習기자부터 교열부 고집... 언론계 40여년 ‘篤筆작가’로 명성... 강직한 성품으로 수많은

이제는 ‘字學선비’

- 전 서울신문 기자(수습1기)
- 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작가 · 현 한국 어문기자협회 고문

嚴 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물론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서다. 해입발령을 밥 먹듯이 해 오신 분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대쪽같은 사장의 기세와 대쪽같은 말단 교정기자가 정면으로 부딪쳤을 땐 아무런 불꽃이 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때 체험했다”고 술회한다. 그의 강직한 성품은 율쟁이 기자 시절에도 드러났다. 서울신문 견습짜지가 떨어지면서 편집국장과 宋基鳳 교열부장이 2~3개월마다 은밀하게 엮이던 기자



嚴 畿 원로회우가 1992년 6월 28일 백두산 천문봉에서 천지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

현 외길 걸어온 逸話 남겨

월급만 올려줬다. 그는 부장에게 “나만 월급을 올려주면 ‘월급벌레’ ‘돈벌레’로 욕이 될 터이니 다른 기자와 함께 올려달라”고 간청했다. 그 뒤 ‘나홀로 월급’ 인상은 뚝 끊어졌다. 혼자 특혜를 누리는 것을 사양한 것은 해외여행 거절에서도 드러났다. 해외여행이 특전이던 1955년 서울신문 趙東勳 편집국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8개월간 미국 언론계 시찰 케이스로 嚴 기자를 추천했다. “나는 미국 언론계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대신 엄기성 기자(입사동기)를 보내 달라고”고 추천하니 趙 국장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하얘졌다고 한다.

‘自由文學’ 통해 登壇…온실문학 타파

嚴 畿 원로회우는 마감시간에 쫓기는 언론현장을 지키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自由文學’을 통해 登壇했다. 1959년 작품 ‘臟物’로 金松 선생의 1회 추천을 받았고, 이듬해 작품 ‘風語’로 2회 추천 때는 金 송, 白 鐵,

安壽吉 선생의 공동 추천을 받았다. 당시 문학지로는 ‘現代文學’과 ‘자유문학’ 두 개 밖에 없던 시절이다. -대표작을 꼽는다면?

“단편은 ‘인간괴뢰’와 ‘장물’, 중편소설은 ‘전쟁이 드나드는 방’, 장편소설로는 ‘渤海記’(1981), ‘몽고 五國志’(1990)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 재직 시절인 1965년 12월 첫 단편집 ‘도로아미타불’(양우사)을 출간했다. 백 철 문학평론가는 “저널리즘에서 자란 눈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작가가 嚴 畿 씨다. 거의 독혈증세에까지 빠진 듯한 사상문학을 하느라 篤筆을 휘두르고 있는 작가로는 이 작가를 빼고는 없을

건강포럼 ‘전립선 강의’ 대성황 10월15일엔 ‘100세 살기’ 주제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와 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 이운수 박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요 건강포럼’이 지난 9월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뇨기과에서 열렸다.

이날의 주제는 ‘땀의 전립선은 안녕하신가요?’

주제 강연을 맡은 이운수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전립선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남성들이 걸리는 암 가운데 전립선 암이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전립선 암을 비뇨기과 의사들은 ‘착한 암’으로 부른다”면서 “조기 발견이 되면 수술 등 치료로 결과가 매우 좋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성,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1년에 한번씩 전립선 질환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시력은 50세부터, 전립선은 55세, 근력과 관절, 골밀도는 60세부터 급격히 기능이



이운수 박사의 강의를 경청하는 회우들.

떨어진다며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내과는 물론이고 정형외과, 그리고 비뇨기과 주치의를 1명씩 정해두는 것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요건강포럼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 이외에도 중앙매스컴 사우회 회원들도 참석, 30여명이 강의를 경청했다. 포럼이 끝난 뒤 근처 생맥주집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 토요건강포럼은 10월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주제는 ‘100세 살기 이렇게’로 연사는 전 세브란스 의대 오혜영 의학박사이다.

건강포럼담당 이보길 편집위원

본회 기우회 분기 친선모임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 분기 친선모임이 지난 8월 30일(화) 종로3가 세계바둑기원에서 있었다.(사진)

이날 모임에는 정회장을 비롯 金潤석(총무), 金성배, 文준호, 이상우, 이종기, 이성호 회우 등이 참석, 무심의 수담을 즐겼다. 금년도 연말 바둑대회는 11월 하순에 갖기로 했다.



소범(甦凡·蘇凡) 두 가지만 쓴다고 한다. 소범은 현실(平凡)과 이상(非凡)을 조합하여 원만한 인간형으로 새로 나오도록 힘쓴다는 좌우명을 상징한다는 것. 본명 龍基는 공문서에서나 쓴다. -언론환경이 급변하면서 교열부의 위상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신문제작이 CTS화되면서 어떤 신문사는 교열부를 아예 없애거나 편집부로 흡수통합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등 교열기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개탄한다.

嚴 원로회우는 재직 시 교열기자 위상확립에 앞장서 왔다. 중앙일보 창간 멤버 시절 경영 종합진단을 하면서 ‘교정은 비전문직으로 고졸 정도면 된다’며 교정부 기자 9명에서 7명을 감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단팀장은 출판사에 가서 ‘경영학개론’을 직접 교정해 본 뒤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일갈하는 ‘반박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감원이 전면 보류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교열기자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는 1975년 10월 17에 창립된 ‘교열기자회’(현 한국어문기자협회)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다. 어문기자회 계간誌 ‘말과글’ 창간 뒷바라지를 했고, 종신고문으로 장기간 어문진단 에세이와 靑筆紅筆欄을 고정 집필해 왔다.

“교열기자는 박학다식 해야지요”

-후배 교열기자에게 조언 한 말씀

“교열은 치밀한 인간 두뇌의 영역이고, 교열기자는 문자문화와 언어문화의 마지막 지킴이들입니다. 따라서 교열기자는 박학다식해야 하고,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氣概같은 냉엄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 언론관련 저서로는 ‘신문교열 연구 凹凸의 激戰地’(1979), 번역서 딘 모건의 ‘大穀物商戰’上·下(1981) 등이 있다.

-교열기자와 작가인생의 후회는 없으신지요?

“교열을 하면서 글 쓴 애환의 신문사 생활, 후회 없습니다. 한 우물로 교열기자를 한 덕택에 작가가 될 수 있었고, 퇴사 후에도 기업체 社史편찬작업에 몸담을 수 있었지요. 이런 저런 관록을 인정받아 문학과 어문관련의 글을 꾸준히 집필할 수 있었으니 모두 고마운 일이지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직하게 살아온 날들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 실버인생이다.

1967년 3남 1녀를 남기고 아내(金貞玉)가 타계 한 뒤 이듬해 金千代子(80·일본서 출생 한국인)여사와 재혼, 여생을 의지하며 오붓하게 지낸다. 둘째아들 庚俊 씨는 조선일보 교열부 기자로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 ㉠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인체를 이루고 있는 60조(兆)개의 세포 가운데 단 하나의 반란(변이·變異)으로 시작되는 암화(癌化)의 메커니즘은 문과계(文科系)의 두뇌로는 병방할 정도로 복잡하다. 전자현미경으로만 확인되는 초극소(超極小)의 세계, 1,000개가 늘어서면 1mm가 되는 세포의 핵(核)속에 유전자, 곧 DNA가 들어있다. 펄면 길이 2m의 이 또한 전자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극세사(極細絲) 실모양의 DNA에는 30억개의 염기(鹽基)가 들어 있다. 구부러진 나선형 사다리 모양의 DNA에는 50페이지 신문 20년치, 또는 백과사전 100권 분량의 방대한 정보가 생물문자(生物文字)로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의 핵속에 엄청난 양의 유전정보를 실모양의 DNA에 담아 수납(收納)하는 '신(神)의 손'은 놀랍다는 표현외에 달리 할 말이 없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대한 유전정보를 한치 어긋없이 판독해서 각기 다른 인체를 이루는 작업의 정확성에 있다. 자기복제가 가능한 DNA의 능력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빼어박은 듯이 닮게 하는 불어쌍 기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유전정보를 판독하여 작업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제이콥과 모노 두 박사인데 1960년초에 유전자정보의 판독에는 스위치를 온(ON) 또는 오프(OFF)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학설을 발표한다. 그 학설에 의하면 사람의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없게하고, 눈알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는것은 적시(適時)에 스위치를 오프해서 눈알이 2개에서 작업이 그치도록 설계도 대로 판독하는 오퍼레이터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두서, 시그마 인자(因子)등의 물질도 간여해서 그 중 3종의 제어(制御)기구가 존재한다는 데야 이야기를 계속 펼치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다.

DNA를 형성하는 염기는 무질서하게 엉켜있는게 아니라 A.T.G.C의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문자는 염기의 성분을 뜻하는 물질의 대명사다. 이 염기 배열이 한자만 순서가 뒤바뀌어도 인체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다. 이것이 유전자 손상(損傷)이다. 유전자가 다치는 사연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암은 유전자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는게 유전자연구의 결과보고이다. 유전자의 비밀은 수많은 트릭으로 엮여진 공상과학소설 같은데 유전자의 비밀을 규명하는 '인간 게놈 계획(Human Genome Project)'는 DNA에 감춰져 있는 30억개의 암호문 전문을 읽으려는 인간의 도전이다. 말하자면 신의 무기고를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는게 아니라 솥재 잠겨진 문을 비집고 그 속에 한 발짝 들여다놓은 형국이다. 그러나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암의 완전정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암 가계(家系)가 드러나고, 언제쯤 암이 발증(發症)하는지를 알게 될 수도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⑫

癌은 지척에 있다 ㉞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일인지는 과학자들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암을 예방하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는 일이 사람사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 우리나라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암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권장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린적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다만 일본서적에서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저들 국민들에게 생활습관의 지침으로 권장 발표한 '암을 방지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격언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을 들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6년 일본 후생성(厚生省·지금은 후생노동성)이 암, 심장병, 간장병, 당뇨병, 뇌혈관질환, 고혈압증, 고지혈증 등 '성인병'으로 부르던 것을 '생활습관병'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일백세 현역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는 일본의 누가병원 내과 의사로부터

고지혈증 등 '성인병'으로 부르던 것을 '생활습관병'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일백세 현역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는 일본의 누가병원 내과 의사로부터

삶이 즐거워지는 생활습관이 최선

하기 위한 12개 항'을 알고 있으므로 적자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필자 주(註)

- 영양을 골고루 균형있게 섭취
- 매일 식생활을 변화있게
- 과식하지 말고 기름기(포화지방산)는 삼간다.(적게)
- 술은 알맞게
- 담배는 피지 않는다
- 식품(먹거리)에서 비타민을 적당하게, 섬유질은 많이
- 짠것은 적게, 너무 뜨거운 것은 식혀서 든다
- 탄 부분은 안먹는다
- 곰팡이 난것은 주의한다(안먹는다)
- 햇볕에 너무(장시간) 쬘이지 않는다
- 적당한 운동을(지속적으로)
- 몸을 늘 청결하게(목욕을 자주)

'암에 걸리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쓴 정종철 교수는 음식은 다양성을 즐기고 여러가지 먹거리(食材)를 섭취하되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고 언제나 신선한 먹거리를 먹도록 권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세끼 식사를 꼭 정한 시간에 먹고 먹성의 80%정도로 소식(小食)을 권하고 있다. 이 대목은 중국이나 일본의 옛날 양생(養生)에 관한 의서(醫書)에서 한결같이 하는 같은 소리다. 그리고 뉴욕과 동경에 클리닉을 갖고 있으며 내시경을 30만 건이나 들여다 본 위장박사 신아히로미(新谷弘實)도 100만부나 팔린 병에 걸리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에서

병원장, 명예원장을 지내며 일본의 의료수준 향상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저명(著名)의사다. 한국에서도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강연도 한바 있으므로 낮은 의사다. 그는 저서 '삶이 즐거워지는 열다섯가지 습관'에서 사람은 습관에 의해 건강과 질병, 행(幸)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고쳐 부르게 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좋은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대해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나쁜 습관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따라서는 자기의 습관을 다시 살펴보고 바꿀것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의지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후회하게 된다. 치우친 식사나 지나친 피로 등 신체의 리듬을 무시한 나쁜 습관은 반드시 질병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질병에 의해 몸이 망가지고 난 뒤에 눈물짓는다고 한들 이미 늦다. 습관만 바꾸면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은 병명이 '습관병'이다. 오늘날 누구나 알고있는 '생활습관병'의 명명자(命名者)는 나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주장하는 '삶이 즐거워지는 열다섯가지 습관'은 암을 방지하기 보다는 건강하게 살기위해 권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그러나 건강하면 암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암예방과 유관하다. 히노하라 박사의 건강을 위한 즐거운 습관 열다섯가지는 1. 사랑

하는 일을 마음의 습관으로 삼는다 2. 잘되려는 마음을 갖는다 3.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4. 집중력을 기른다 5. 목표가 될 사람에게 배운다 6. 사람의 마음을 느낀다 7. 만남을 소중하게 8. 먹성의 80%보다 좀 더 적게 먹는다 9. 식사에 신경질이 되지 않는다 10. 될수 있는대로 걷는다 11. 여럿이서 스포츠를 즐긴다 12. 즐거움을 찾는다 13.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14. 책임을 스스로(자기에게서) 찾는다 15. 덮어놓고 습관에만 매이지 않는다 습관 열다섯가지를 부연하고 설명하는 글로 책을 엮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바꾸는 세가지 스텝'을 보자. 『사람이 먹고(식사), 마시고(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습관이라는 선택 행위이다. 사람은 그것을 논리나 의사(意思)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므로 만약 선택행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작용하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게 된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는 해로우니깐 끊으세요" "당뇨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체중을 좀 줄이세요" 라고 해도 환자는 곧장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 그 단계에선 '질병에의 공포'보다는 피우고 싶고,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

이다. 스스로 납득할만한 동기, 인생관을 바꿀만한 모티베이션(동기)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 나쁜 습관을 그만 둘 수가 없고

몸에 좋지 않은줄 알면서도 올바른 식습관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유행하는 멋있는 옷을 입고 싶은데, 또는 그룹활동에 입문새 때문에 끼지 못하니 금연이나 체중감량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세가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질병이나 질병에 관한 빠른 정보를 갖는다. (의사로부터, 서적에서)

둘째 얻은 정보를 자기것으로 수용한다. 자기 습관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질병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셋째 습관을 바꾸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던 계속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

암 예방에 관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조리 늘어 놓는다 하더라도 암은 인간에게 최대의 강적(強敵)이다. 만만찮은게 아니라 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수가 없는 재앙일진데 누구라도 기죽게 되어 있다. 일본 최고위의 암의료전문기관인 동경 초기지(築地)의 국립 암센터 병원의 역대 총장 7명중 약 5명이 암으로 죽었다. 일본의 최장수 소화(昭和)왕도 암으로 죽고, 그 암을 최초로 진단한 의사도 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원자력병원 원장이던 이장규 박사도 암으로 사망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동아일보 문화부에 있을때 문화면에 매력있는 칼럼을 쓰던 그는 소탈하고 자상한 의사다. 꼬챙이 처럼 수척한 그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㉞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

처음엔 당신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멋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이 미래다



溫故知新

풍운아 蛟山 許筠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생가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교산 기슭에 있던 애일당(愛日堂)이다. 그 집은 이제 흔적도 없고, 대숲으로 변한 빈터에 해풍만 쓸쓸한데, 멀리 동해가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는 1983년에 세운 교산사비만 가끔 찾는 이들을 반길 뿐이다.

허균은 선조 2년(1569)에 양천 허씨 초당(草堂) 허엽(許燁)과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 그의 부친 허엽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로서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대사헌 등을 지낸 문인이요 학자요 정치가였다. 허엽에게는 아들 셋, 딸 둘이 있었다. 맏아들은 성(箴), 둘째아들은 봉(筠), 막내딸은 초희(楚姬). 허균의 누나 초희가 바로 유명한 난설헌(蘭雪軒)이다.

허균은 5세 때부터 형들의 어깨너머로 글을 익히고 9세 때부터 시를 지을 만큼 재주가 비상했다. 그는 13세에 부친을 잃고 어머니와 작은누나와 함께 서울에 살면서 학문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시는 손곡(蓀谷) 이달(李達)한테서 배웠다. 이달은 작은형의 친구로서 천재시인이었지만 모친이 천한 종인 양반의 서자, 즉 서열(庶孽)이었으므로 과거를 보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허균이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선조 27년(1594). 재주가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하니 소인배의 시기와 모략이 끊임없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기보다 불화를 택했다. 파면과 사직을 거듭하다가 벼슬살이 8년 만에 정3품 당상관인 사복시 정에 올랐으나 또다시 파직당해 산수 간을 넘나들며 풍류를 즐겼다.

허균은 포부는 컸으나 뜻대로 펼칠 수 없었고, 재주는 인정하나 사람됨을 알아주지 않는 관료사회의 편협함에 염증을 느꼈다. 자신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고 여긴 그는 강호를 떠돌면서 재주는 있으나 처지가 불우한 벗들과 즐겨 사귀었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첩의 소생이면 벼슬길을 막는 서열금고

제도가 있었다. 나라는 비좁고 인구는 많은데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첩의 자식은 홍길동(洪吉童)처럼 아버지를 아버라 부르지도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허균의 스승 이달도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었으나 서열이란 태생적 한계 때문에 평생을 술과 방랑으로 불행하게 보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비롯한 저작을 통해, 또는 벼슬길에서 이들의 편을 들어 준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허균은 '유재론(遺才論)'을 통해 적자와 서자 차별 대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도적 실리적 차원에서 서열금고제도의 철폐를 이렇게 주장했다.

- 사람의 재주와 능력은 하늘이 준 것이므로 귀한 집 자식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천한 집 자식이라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다. -

선조 36년(1604)에 황해도 수안군수로 나갔다가 1년 만에 쫓겨난 그는 3년 뒤에 부임한 삼척부사 자리에선 겨우 13일 만에 쫓겨났다. 재주가 뛰어난 만큼 시기도 많이 당했고, 남의 시선을 꺼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으므로 순탄한 벼슬길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는 유·불·선 3교에 통달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다. "성욕과 식욕은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이므로 유교나 불교의

계율로도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성인(聖人)의 가르침보다도 하늘을 따르겠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새 정권에 끈이 없는 허균은 다시 벼슬이 떨어졌다. 또 2년 뒤에는 과거 시험관으로 복직했지만 조카와 제자들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그 이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라도 함열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귀양이 풀리자 그는 부안(扶安)으로 들어가 기생 매창(梅窓), 중 해안(海眼), 천민시인 유희경(劉希慶) 등과 더불어 변산·채석강·적벽강·내소사·개암사·직소폭포 등 명승절경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겼다. '이화유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턴 남...' 하는 유명한 시조를 지은 명기 매창의 길지 않았던 일생에서 허균은 차(茶)와 선(禪)의 스승이었고 정신적 연인으로서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매창이 간 지 2년 뒤인 광해군 4년(1612). 그의 나이 45세 되던 해 12월에 부안 선계골 정사암에 은거할 때로 추정된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을 한탄하고 분노하며 서민대중을 위한 소설 <홍길동전>을 썼다. 허균은 소설은 괴담이라고 천시하고 공맹(孔孟)의 가르침만이 참된道理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소설을 즐겨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언문, 상놈의

글자라고 천대받던 한글로 소설을 쓴 선구자였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에 용감히 도전한 쾌남야요 서민의 영웅이었다. 허균은 연산군 때의 실존인물인 홍길동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재창조했다.

<홍길동전>이야말로 서민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고 이상국을 세우려는 허균의 원대한 의지가 집약된 걸작이다. 현세의 홍길동, 현실의 활빈당(活貧黨) 행수(行首)였던 허균은 원민(怨民)들을 모아 자신의 활빈도를 만들려다가 귀양살이를 했고, 귀양이 풀리자 적극적으로 현실과 부닥쳐 타협 아닌 적극적 대결을 벌이려고 했다. 그가 당시 실권자였던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의 힘을 빌려 광해군의 조정에 들어가 좌승지·형조판서를 거쳐 정2품 좌참찬까지 오른 것은 오로지 광해군의 그늘에서 이이첨을 방패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해군 9년(1617) 허균의 역모를 고발하는 비밀상소가 연거푸 세 차례나 올라갔다. 이는 이이첨이 허균의 세력이 커져 자신의 강력한 정적(政敵)이 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음모였다는 설도 있다.

허균은 그렇게 하여 의금부 옥에 갇혔고, 광해군 10년 음력 8월 26일(음력은 9월 23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해에 그의 나이 50세였다. 그러나 허균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왕조시대가 끝나고 백성이 주인이 된 새 세상이 되자 역사의 무덤에 깊이 잠들어 있던 풍운아 허균, 미완의 혁명가 허균은 <홍길동전>과 더불어 국문학사의 선구자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이다.

그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수정산 기슭 양천 허씨 묘역 부친과 형들 묘 사이에 있는데 시신이 없는 빈 봉분이다. 이는 그가 왕조사의 역적으로 능지처참당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이홍우 회우 '시사만화전' 화제 '나대로 선생' 4컷 밖으로 나들이



이홍우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위원·현 상명대 문화예술대학원 만화영상과 교수·사진)가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에서 '나대로 시사만화전'을 열어 화제다.

27년 동안 동아일보 시사만화 '나대로 선생'을 연재했던 이 회우는 "이번이 첫 전시회로 '나대로 선생'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이홍우 화백이 본 격량의 한국(1980~2007)'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별로 화제가 됐던 '나대로 선생'의 주요 작품 60여 편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캐리커처 20여 편을 전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나대로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수묵화 20여 점도 선보인다. 이 그림 속에서 '나대로 선생'은 산으로 들로 여행가고, 술잔을 앞에 두고 사색도 한다.

이 회우는 자신의 만화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화 속에 들어 있는 '해학의 미' 때문에 여태껏 적지고 지내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네 컷의 사각 틀에 갇혀 살았던 주인공이 '나대로 선생'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이 회우의 소감이다.



制赤峰 1.8km앞 북한 땅... 감회 뭉클

대한언론인회 금년도 가을철 문화탐방엔 흥원기 회장을 비롯, 모두 73명의 회우들이 참가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유난히 고맙기만한 9월 23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를 출발한 우리 일행이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차창 밖으로 만난 곳은 문수산성(376m), 사적 제 139호로 조선 19대 숙종 20년(1694)에 바다로 들어오는 외적을 막고, 강화도 방어를 위해 쌓은 성이다.

문수산성에 심취해 있는 동안 차는 어느새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도착했다. 이곳 평화전망대는 강화군 양사면 성리에 위치한 제적봉(制赤峰)에 있으며 일명 758 OP로 불려진다. 강 건너엔 북한의 개풍군, 연백군이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깝다. 왼쪽으로 예성강, 오른쪽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남쪽에 위치한 민간인 통제구역, 북한과 최 근접거리는 1.8km에 불과해 육안으로도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개성공단 탐, 아름다운 송악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최적의 안보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언제 들어도 가슴 절절한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느끼는 감회가 어떠할지는 한 여성 해설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김일성 사진 너무 부각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안보전시관에 부착된 남북한 비교 차트에서 김일성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남한상황은 북한 설명 밑에 깔아버린 것. “굳이 김일성 사진을 넣고 싶다면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 사진도 올려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며 목청을 돋운 어느 회우의 지적에 공감의 간다. 북한의 우상화실태를 적나라 하게 보여 주려는 의도에서 김일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 발전상을 더 부각시키고 이승만 건국대통령 사진도 올려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외포리까지는 버스로 약 30분정도, 예정시간보다 일찍 음식점에 도착한 탓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음식점에서 우렁찬우렁탕을 들며 마음껏 회포를 푸는 모습이 마냥 정겹다. 창밖으로 석모도가 보이고 그곳 해명산엔 신라 선덕여왕 4년(서기 635년)에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에 절을 창건했다는 보문사가 눈에 선하지만 이번 탐방코스엔 빠져 있다.

오후에 찾은 곳은 강화 역사박물관, 작년 10월 28일 개관한 이 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개국시대부터 청동기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시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옛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통해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이어서 둘러본 곳은 고려궁지. 고려

본회 강화도 가을문화 탐방기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북한땅을 배경으로 선 문화탐방단.



외포리 음식점에서 우렁탕으로 점심을 들며 즐거운 한 때.

고종 19년(서기1232년) 6월 당시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려무인 최우의 용기 있는 주장에 따라 도읍을 송도에서 천혜의 요새인 강화도로 옮겼

는데 이때 옮겨진 도읍터가 고려궁지다. 원종 11년(서기1270년) 5월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간 이곳에 머물렀다. 그 후 이 성은 1637년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청나라 군에게 함락되는 등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궁궐과 성은 무너지고 고려 궁터에는 조선시대 건물인 승평문, 강화유수부동헌, 이방청 종각 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고려궁지 안엔 외규장각이 파란만장한 역사의 뒤안길에 되새기게 한다.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다. 말하자면 왕립 도서관 규장각의 부속 건물인 셈이다.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해 총 1,000여권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이 많은 서적을 약탈해 갔다. 작년에 그 중 일부인 의궤를 반환받았으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일까 감회가 새롭다..

‘한국 역사의 축소판’ 한 눈에

이런 사연을 지닌 고려궁터를 지나 언덕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용흥궁(조선조 철종이 머물던 궁)공원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쪽문을 들어서니 성공회강화성당이 110년 넘는 세월을 지키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건축법과 궁궐 건축법, 그리고 성공회 전통의 바실리카 양식이 더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영국인 신부가 백두산으로 100년 넘는 소나무를 구하러 갔었다. 나무를 구해 서해를 통해 강화까지 가지고 오는데 6개월, 다시 나무를 말리는데 6개월을 보내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강화도는 인쇄 문화와도 관계가 깊은 곳이다. 정족산사고와 선원보각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왕실족보, 그리고 선원사에서 편찬되었다는 고려 팔만대장경까지 이곳에서 조판돼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IT 기술의 현장에 다름 아니다.

강화도에 얹힌 슬픈 사연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충헌에 의해 쫓겨난 고려 21대 왕 희종(熙宗)부터 조선시대 연산군 영창대군, 임해군, 능창대군 등 11명의 왕족이 이곳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기록이 있다. 그중 연산군은 유배 온 지 두 달 만에 이곳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과 부인도 이곳에서 명을 다했다. 어린 나이의 영창대군도 이곳 강화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선조 병자호란 때는 봉림대군(뒤에 효종이 됨)이 이곳 강화에서 난을 피했다. 조선조 후기엔 ‘강화도령’ 철종이 살던 곳이며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곳이 바로 강화도가 아닌가. 강화도엔 이밖에도 볼 곳이 많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본군함 운양호 침공 등 근세 외침에 줄기차게 싸운 전적지인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그 내륙 쪽으로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등사(서기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도 화상이 창건)가 있다. 참성단으로 유명한 마니산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의 영산이다. 귀경시간에 쫓겨 볼 곳을 다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4\]](#)

글 정운중 상임이사

홍천 팔봉산으로 갑니다

본회 산악회 10월14일 하반기 정기 山行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하반기 정기산행을 강원도 홍천의 명산 팔봉산(327m·사진)에서 갖습니다. 아기자기한 비경과 기암괴석을 품은 팔봉산과 산길을 휘돌아 흐르는 팔봉강은 한쪽의 동양화를 감상하듯 경관이 수려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초가을 회우 여러분들을 모시려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011년 10월14일 금요일
- 산행장소 = 강원도 홍천 팔봉산
- 집합장소 = 10월14일 오전8시 프레스센터앞 (시간엄수·정시 출발)
- 신청마감 = 10월12일(수) 선착순 40명
- 회 비 = 1인 2만원(가족동반 환영)
- 참가신청 = 010-5443-0063

- ※ 산행이 어려운 회원은 팔봉천 유원지에서 강변 산책
- ※ 산행뒤 뒤풀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1일

대한언론인회산악회 회장 안 중 우

隨想

읽어진 밥그릇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라 했다.

바로 전 까지만 해도 강 물살이 오랜 시간을 들여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그리고 북방으로 흐르면서 땅을 깎아 새겨놓은 선암(仙岩)마을의 한반도 지형의 신기한 닳은꼴에 혀를 내두르고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의 '단종애사' 속의 기원 하기도 슬픈 생애, 애통한 피눈물 등 장면 장면을 뇌리에



김 귀 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사람 나머지 반이 재일한국인, 그리고 뉴카머(New Comer)라고 불리는 신참 한국인은 나 혼자 뿐이었다.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풍습을 따르라'는 격언에 따라 나는 흥겨운 기분으로 일본의 다채로운 식문화에 젖기로 했다. 농경문화의 마쓰리(祭)에서 싹트기 시작한 신토(神道)

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의 술은 '신의 물림'으로 신성시 한다. 술을 마실때는 잔을 눈높이까지 올리면서 사의를 표한 후 마시며 자작(自酌)을 원칙으로 한다.

상사의 잔이 반 가량 비면 아랫사람이 첨잔할 수는 있지만 잔돌리기는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인연이 있어 나를 만난 내 술잔은 나의 입술만을 찾으며 향연이 끝날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내 타액이 묻은 그것을 나는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 혼자 훌쩍 훌쩍 한다고 미울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자작을 즐겼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술 문화의 규범과 관습을 무너뜨리고 나니 자유로운 의식세계가 펼쳐짐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은 모두가 모여 같이 마시는 것으로 윗사람이 먼저 술잔을 든 후에 모두 이에 따르고, 어른이 준 술잔은 외면하면서 마셔야 하고 술잔을 올릴때는 왼손을 받친 오른손으로 드려야 한다. 첨잔은 망인(亡人)의식이라 피하며, 자작하는 사람은 정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게 된다"고 나는 설명했다.

이상 야릇한 술 문화의 설명을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자작으로 술을 마시던 직원들이 하나 둘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얼큰해진 나도 읽어진 밥그릇을 바로 세우고 밥통당번 아주머니에게 힘껏 내밀면서 밥을 청했다. '밥그릇은 들고 다니는게 아니야'라는 낯은 우리 관습을 깨고, 낯선 이웃 문화를 즐겨보자는 마음에서였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편리하고 나도 모를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

누구를 빼탈것도 없이 모두가 독불장군인 퇴직 언론인의 모임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웠다. '체력단련행사는 1박 2일 코스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의 중론인 것 같았다.

나는 작은 접시를 청해 불고기와 육즙을 떠다가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지용우(池龍雨)형이 술잔을 들고 원정을 왔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둘은 서거니 앉거니 술잔을 주고받는 수밖에 없었다. 머리 위에서 술잔이 왕래하게 되자 슬며시 몸을 기울인 옆자리 친구들도 "위낙 자리가 비 좁아서.... 어쨌거나 술잔 전달이 되었으면 그만이지"했다. 술자리 분위기가 한결 따스해 지면서 정체를 몰래 벗어내는 해방감을 맛보는 듯 했다.

신문사의 사원구성 비율은 반이 일본

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의 술은 '신의 물림'으로 신성시 한다. 술을 마실때는 잔을 눈높이까지 올리면서 사의를 표한 후 마시며 자작(自酌)을 원칙으로 한다.

상사의 잔이 반 가량 비면 아랫사람이 첨잔할 수는 있지만 잔돌리기는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인연이 있어 나를 만난 내 술잔은 나의 입술만을 찾으며 향연이 끝날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내 타액이 묻은 그것을 나는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 혼자 훌쩍 훌쩍 한다고 미울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자작을 즐겼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술 문화의 규범과 관습을 무너뜨리고 나니 자유로운 의식세계가 펼쳐짐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은 모두가 모여 같이 마시는 것으로 윗사람이 먼저 술잔을 든 후에 모두 이에 따르고, 어른이 준 술잔은 외면하면서 마셔야 하고 술잔을 올릴때는 왼손을 받친 오른손으로 드려야 한다. 첨잔은 망인(亡人)의식이라 피하며, 자작하는 사람은 정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게 된다"고 나는 설명했다.

이상 야릇한 술 문화의 설명을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자작으로 술을 마시던 직원들이 하나 둘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얼큰해진 나도 읽어진 밥그릇을 바로 세우고 밥통당번 아주머니에게 힘껏 내밀면서 밥을 청했다. '밥그릇은 들고 다니는게 아니야'라는 낯은 우리 관습을 깨고, 낯선 이웃 문화를 즐겨보자는 마음에서였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편리하고 나도 모를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

누구를 빼탈것도 없이 모두가 독불장군인 퇴직 언론인의 모임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웠다. '체력단련행사는 1박 2일 코스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의 중론인 것 같았다.

나는 작은 접시를 청해 불고기와 육즙을 떠다가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지용우(池龍雨)형이 술잔을 들고 원정을 왔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둘은 서거니 앉거니 술잔을 주고받는 수밖에 없었다. 머리 위에서 술잔이 왕래하게 되자 슬며시 몸을 기울인 옆자리 친구들도 "위낙 자리가 비 좁아서.... 어쨌거나 술잔 전달이 되었으면 그만이지"했다. 술자리 분위기가 한결 따스해 지면서 정체를 몰래 벗어내는 해방감을 맛보는 듯 했다.

밥그릇이건 술잔이건, 바쁠때는 날으

장종덕 회우 별세

장종덕회우가 지난 9월 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고인은 1943년 8월 10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 서울 중동고와 한국의국어대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했다. 1968년 중앙일보 TBC 공채 6기로 언론계에 진출한 고인은 TBC보도국 사회부, 정경부 기자, KBS 보도본부 문화과학부 사회부 기자,



차장, 월드뉴스부장, KBS 강릉방송국 보도부장, KBS 보도국 보도부장직등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는 9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흥원기 회장, 김은구 상담역, 정기정 부회장, 정운종 상임이사, 신성순 신동철 김선기 호천웅 회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

弔辭

고 장종덕 선배를 추모함

김준범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전 국방홍보원장)

장종덕 선배! 어찌 이리도 황급히 떠나셨습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기에 이리도 황망히 달려가신 것입니까? 슬퍼하는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동료 선후배들을 뒤에 남기시고 어찌 이리 훌훌 털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종덕 선배는 중앙일보 동양방송 6기생으로 저의 10년 선배이십니다.

저희 후배들은 장 선배의 그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눈짓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의 법칙이라 하니 서운한 감정 억누르며 고이 보내 드리렵니다. 부디 저 세상에 가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장 선배의 그 순수한 영혼 그대로 편히 쉬소서!

장 선배가 과거 TBC 시절부터 피땀으로 개척해 온 방송의 길은 이제 백화제방(百花齊放)의 발전가도에 들어섰습니다. 장 선배를 비롯한 당시 방송역군들은 1960~70년대의 민방 개척기에 오늘의 21세기를 향한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장 선배를 비롯한 당시 선배들은 그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 선배는 TBC에서 사회부와 경제부, 외신부를 두루 거치며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후배들의 귀감이 됐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임무에 충실한 대표적인 선배였습니다. 장 선배는 자칫 각박하게 보일 수도 있는 당시 기자사회에서 언제나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보기 드문 선배였습니다. 저는 장 선배가 얼굴을 찌푸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웃는 얼굴과 밝은 모습으로 언제나 보도국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셨습니다.

장 선배의 타고난 성품과 친화력은 KBS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져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 선배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장 선배는 늘 정론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울곧은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읽는 김준범씨.

장종덕 선배는 '장 중사'라는 그의 별명처럼 장교와 사병들간의 소통과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 낸, 후배 기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소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는 돌도 없는 다정다감한 선배로 그 자신도 그 별명을 좋아하셨습니다. 장 선배는 요즘말로 치면 후배들의 영원한 코디네이터요 친절한 멘토였던 것입니다. 장 선배는 대체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천성이 악하거나 모질지 못하고 남과 시비할 줄 모르며 늘 여유롭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장 선배는 엘리트 주의를 지향하는 살벌한 경쟁체제 보다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동료들의 우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 사이에서는 장 선배를 가리켜 '가장 TBC적이지 않은 선배'로 통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장 선배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기댈 언덕이 돼 주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강릉 선배의 고향에 다녀올 때면 동료들에게 그곳 특산물인 마른 오징어를 나눠주며 주위를 즐겁게 하곤 하셨습니다. 그 때, 그 마음씨 넉넉하던 장 선배가 그립습니다. 장 선배, 저 세상에서도 친절과 자상한 마음으로 주변을 훈훈하게 만드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 선배를 잃은 TBC 보도국 동보회 동료들, 중앙일보 6기 동기회 사우들 그리고 KBS 동료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눈길로 저희 후배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그리운 이름 다시 한 번 불러 봅니다. 장종덕 선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9월6일, 후배 모두를 대신하여 김준범 절합니다.

기도 하고 졸음때는 서서 마시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개운한 일이다. 문화는 세월의 흐름과 환경의 요구, 그리고 삶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 왔다. 고루하고 불편한 관습은 오래전 부터 퇴색을 거듭

하고 있는 것이다.

체력단련의 오후 일정은 김삿갓 유적지답사였다. '술 한잔에 시 한수로..'

시흥(詩興)에 쫓겨 우리는 방랑시인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 했다. [문]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제2회 백교문학상 시상



권혁승(백교문학회 회장·전 서울경제신문 사장)회우=10월 1일 오후 2시 강릉 경포 죽현 핸다리 사모정공원에서 김봉래(대상), 박서정(우수상), 신성철(우수상) 정성수(장려상)씨에게 제2회 백교문학상을 시상한다.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촉



김인규(KBS 사장)회우=최근 유엔 산하 비상설 국제기구인 '브로드밴드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BCDD)' 위원으로 위촉됐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유엔이 지원해 지난해 5월 출범한 국제기구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와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를 포함, 54명의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 사장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을 대표해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 창립



봉두완(전 동양방송 앵커)회우= 9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 TV방송' 창립 준비 모임인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통일 TV' 설립은 통일부와의 교감아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구(전 KBS 경영본부장)분회 상담역은 자문위원, 배학철(전 KBS 보도본부장) 회우는 지도위원으로 각각 위촉 됐다.

전임 사우회장으로 감사패 받아



안상현(전 CBS 사우회 회장)회우= 최근 CBS 사우회로부터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받았다. 안 회우는 CBS 사우회장 재임시 회원간의 유대와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세종대 석좌교수



여영무(뉴스앤 피플 대표·전 동아일보논설위원)회우= 지난 학기부터 서울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로 발탁돼 강의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고양인 100인'에 선정



이태영(KOC 국제위원) 부회장은 8월 26일 오후 3시 고양시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랑스러운 고양인 100인' 출판기념회에 참석. 이 부회장은 고양신문과 고양시 향토문화보존회가 뽑은 '자랑스러운 고양인 100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됐다.

한중문화산업박람회 참석



조강환(장암개발 회장)회우=8월 22일 중국 하얼빈시에서 열린 한중문화산업박람회에 한국측 CEO 대표단장으로 참석했다. 조회장은 중국 측 인사인 徐慶國 흑룡강성 부성장, 林澤 하얼빈시장, 姜明 하얼빈시당 부서기겸 부시장, 康月華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장겸 안중근의사기념관장과 이규성 주중국대사, 조백상 주신양 한국총영사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전시관을 둘러보았으며 만찬 대담 등에서 한중우호와 문화 산업교류확대 방안등에 대해 협의했다.

실버들에 영어 팝송 가르쳐



최선록(전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회우=지난 2005년 용인시청이 65세 이상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2시간 30분간 개설한 영어회화 강좌에 4년째 강사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최회우의 아들 딸 남매도 현재 네덜란드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나홀로 민사소송절차' 세미나



홍용수(NSI 자산관리연구회 회장)회우=9월 20일 12시부터 3시까지 고정환 변호사를 초청해 최근 일어난 금융, 부동산, 세법 변경 등 각종 자산관리 정보를 토대로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특강.

회우 경조사

결혼

설임운 회우 처녀 = 10월 1일(토) 낮 12시 수애비스 1층 아모트 홀
윤석웅 이사 처남 = 10월 1일(토) 오후 2시 강남역식 실버 홀
한동희 회우 장남 = 10월 2일(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대한언론인회는 회우여러분의 역저를 계속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우여러분의 값진 족적을 높이 선양하고 후진 언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획된 회원저술문고에 동참해 주신 회우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가에 진열된 회우저술문고.

회우저술 문고(본회 기 소장 분)

(가나다순)

강용석 회우 = '인생은 짧지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많다' (2000년)
고두현 회우 = '재미있는 육상이야기' (2008년)
길윤석 회우 = '편집국 25시' (1994년)
김진규 회우 = '도둑님 시대' (1998년)
남사육 회우 = '한국진보세력 연구' (2009년)
민병문 회우 = '펜과 나침반' (2008년)
박권상 조용중 회우 공저 = '1년 특파원 기자학생의 현장' (2002년)
박정진 회우 = '발가벗고 춤추는 기자' (1998년), '미친 시인의 사회 죽은 귀신의 사회' (2004년), '여자(女子)' (2006년), '대한민국 지랄하고 놀고 자빠졌네' (2005년), '한강교향시' (2008년), '단군신화에 대한 신연구' (2010년)
배병휴 회우 = '죽기 살기식 그때의 추억' (2006년)
안광식 회우 = '한국 언론과 투표행태 연구' (2008년), '이화사랑 반세기' (2010년)
손세일 회우 = '이승만과 김구' (2008년)
손주환 회우 = '자유언론의 현장' (1988년)
신동철 회우 = '신문은 죽어서도 말한다' (2003년)
안광식 회우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번역판·1970년)
이명동 회우 =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 (1999년)
이용호 회우 = 이용호시집 '노랑꽃 개나리' (2008년)
이정식 회우 = 이정식 가곡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시' (2011년)
이준기 회우 = '이준기 칼럼. 에세이, 시대의 그림자에 아픔을 묻고' (2000년)
이 형 회우 = '시작하라 멋진 노년을!' (2011년)
이환의 회우 = '시류따라 남긴 칼럼' (1973년)
전민조 회우 = '그때 그 사진 한 장' (2000년)
정운중 회우 = '논설위원 30년(1998년) '이제 나라를 생각 할 때다' (1999년)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2000년)
정진석 명예회우 = '한국언론사' (1990년) '기자 최병우 평전' (1992년)
조강환 회우 = '뜻이 있어 길이 있어' (2009년) '광화문 30년' (2009년)
조용중 회우 =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1990년)
지용우 회우 = '시대의 증언' (2001년)
최종수 회우 = '학은 가문의 가승보' (2010년) '수성최씨의 뿌리와 즐기' (2010년), '80 노부부 동유럽을 가다' (2009년) '80 청춘 동유럽을 가다' (2010년)
홍순일 정진석 회우 공저 = '한국영어신문사' (2003년)
황원갑 회우 = '부활하는 이순신' (2005년)

주소·전화번호 변경

고수균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19동 903호 (우 412-748)
김상수 회우 = 은평구 녹번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2동 802호 (우 122-773)
오판통 회우 = 경기 김포시 장기동 1342 청송마을 현대아파트 207동 1202 호 (우 415-748)
이호계 명예회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헤리티지 107동 401호(우 463-401) 전화 (031) 717-9893 010-5204-9893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_ www.kjclup.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_ 02)2273-4253 드림프랜드

연회비 납부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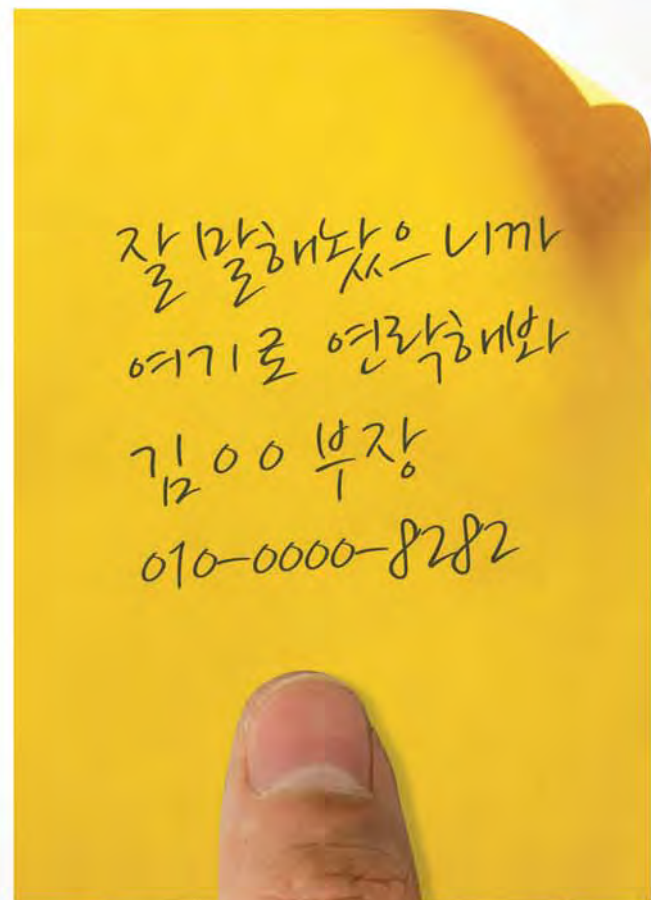
2009년 김두호 문준호 송충섭
2010년 김두호 문준호 송충섭
2011년 구건서 송충섭 윤기로 조덕연 최연석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공정사회가 주는 Yellow card

뿌듯하신가요?
이 것은 반칙으로 받은
Yellow card입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공정한 경쟁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기억되는 아파트 자이, 앞선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업계 최초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아파트, 누가 만들까요?
집안의 모든 보안과 정보를 손끝으로 컨트롤하는 홈네트워크!
헬스,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리는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자이안센터!
에너지 절감기술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린스마트 시스템!
리조트같은 카약장이 갖춰진 감성 수영장이터!
손님들과 파티, 숙박, 스파의 여유까지 누리는 고품격 게스트 하우스!
더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

가장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 **Made in Xi**